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어 *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킬로나 Kelowna
파견대학	Okanagan College	기간	2017. 1. 22(일) ~ 2. 12(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파견 대학은 홈스테이 집과 걸어서 25분, 버스로 40분정도의 거리로 저에게는 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규모는 우리학교보다 많이 작았고, 시설은 도서관, 카페테리아 등 깨끗하며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자유롭고, 수업시간 전까지 공부하다가 가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인이 별로 없는 곳이라 영어공부하기에 좋았던 거 같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주로 저희가 캐나다에서 쓸 수 있는 일상영어부터 시작해서 캐나다라는 나라에 대하여 소개하고 한국과 캐나다를 비교하는 ppt를 만들며 마지막 주에 최종 발표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나갔습니다.</p> <p>저희가 쓰는 대본의 문법을 선생님께서 수정해주시고 발음교정도 해주십니다. 매일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에는 한 줄로 서서 그 날의 중요표현을 체크합니다. 수업은 교실이 아닌 강당의 무대 위에 책상을 놓고 이루어지며 외국인과 따로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가 많이 이루어져 외국인과 대화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면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입니다. 강사는 수업에 대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딸과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까지 저희가 캐나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내주려 노력합니다. 과제는 많지는 않은 편이고 가벼워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Activity는 주로 캐나다에서 인기있는 스포츠를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컬링, 스케이트, 스키, 볼링, 하키경기 관람 등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스포츠도 즐길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수영도 있었는데 저희가 수영복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볼링으로 대체 되었고, 추가비용은 없었습니다. Activity 활동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 좋은 추억이 되는 거 같아요..</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눈 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눈이 쌓이는 속도가 저희 나라를 넘어서고, 날이 너무 빨리 어두워져서 집이 먼 곳에 있던 저는 빨리 귀가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겨울에 간다면 부츠가 필수입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제가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길어서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날 홈마미한테 여쭙봤더니 치안이 가장 안전하다며.. 범죄자가 없는 도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잘 다녔습니다. ㅎㅎ</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의 홈스테이는 아이가 3명인 집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여서 저는 만족스러운 홈스테이였습니다. 여자아이가 말을 잘 걸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규칙은 딱히 없었고, 저희집은 물도 마음대로 쓸 수 있었고, 세탁도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o)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보통 여기는 점심을 싸워서 학교에서 먹는데 저희는 엄마가 너무 일찍나가셔서 점심을 잘 싸가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햇반이 정말 중요합니다. 외부식당은 물가가 비싸서 한번 사먹는데 세금포함+ 팁포함 20달러씩 듭니다. 학교식당도 8-9달러정도 합니다. 돈 없을 때는 도서관에서 파는 캘리포니아 롤도 정말 맛있습니다. ㅎㅎ</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저희 집은 산에 위치하고 있어서 버스가 집 앞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 사람들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 버스 배차간격도 잦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버스정류장까지 걸어서 25분이 걸렸고,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약 38분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5시만 되도 어두워져서 집 갈 때 많이 무서웠는데 치안이 좋다는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잘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이 없고 버스만 있어서 어디 놀러갈 때 불편하긴 했었습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5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외식비	약 267,000원	저녁식사 등
쇼핑비	약 222,500원	선물, 화장품 등
합계	약 199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p> <p>드라이기는 챙겨가는 편이 좋을 거 같습니다. 홈스테이에 없는 경우도 있어서 불편했고, 겨울에 가신다면 부츠도 꼭 챙겨야 합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p>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는 영어가 현재 제 공부에 있어서 많이 급한 편이 아니었기에 중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끼지 못했는데 오히려 캐나다를 갔다온 후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된거 같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제 영어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가져갔던 회화책을 보면서 더 대화하고 싶어서 열심히 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직접 부딪히면서 일상영어를 하게 되니 점점 쓰게 되는 숙어나 단어가 느는 것이 느껴졌고, 홈스테이를 함으로서 그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나 문화에 대해서 더 가까이 느끼고 다가갈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 성격이 생각보다 소심했던 탓에 가족들에게 제 표현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점입니다. 가기 전에 미리 많이 쓰는 표현을 외어놨더라면 캐나다에서 제 의견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는 잘하던 못하던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를 통해 가족들과도 정이 많이 들었고 저희와 많이 달랐던 캐네디언의 생활에 대해 알게 돼서 재미도 있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가족들을 보러 놀러가고 싶습니다. π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는 교환학생까지 도전하여 더 좋은 경험을 만들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캐나다 한국 쌤들과..ㅠㅠ마지막날</p>	<p>흔치않은 날씨 좋았던 날</p>
	
<p>캐나다 전통음식 '푸틴'</p>	<p>우리집 야경 오젓다링~</p>
	
<p>okanagan college 학식</p>	<p>나의 홈스테이 방</p>